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 기초수급 뇌성마비 부부 “아이돌봄 신청, 1년 기다리다 포기”

## 온라인신청만 가능...신청 방법조차 제대로 안내 못받아

### “구청 담당자는 돌봄서비스 할 사람 직접 데려와라” 냉담

#### 장애여성 양육현실①

“책을 읽어주려고 해도 언어가 불편하니 애가 지루해해요. 몸이 자유로워서 놀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장애인은 엄마가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저는 장애가 있어서 안 돼요.”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8월 초, 뇌성마비 1급 장애인 김지연씨(가명·51·여)를 그의 집에서 만났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한 김씨는 같은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가진 남편과 두 명의 아이를 낳아 함께 살고 있다.

각각 3살과 8살난 아이를 키우는 김씨는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원에 가있는 오후 홀로 집에 남아 있었다. 다리에도 장애가 있는 그는 앉은 채로 문을 열어줬다. 인터뷰가 처음이라며 부끄러워하던 그는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자 눈이 반짝였다.

한참 아이들 이야기를 하던 그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야기를 꺼내자 한숨부터 쉬었다. 김씨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절실해서 신청했지만 1년 동안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작년에 신청을 했어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고 1년을 기다리다가 포기했어요.”

해당 구청에 확인을 해본 결과, 돌봄서비스 대기자에 김씨의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었다. 김씨는 전화로 신청을 했

다고 했으나 신청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씨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조차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구청에도 찾아가던 적이 있는 김씨지만 제대로 된 안내는 받지 못했다. 김씨는 “한 번은 동주민센터 가서 신청을 하려 했는데 은행에 가서 (국민행복)카드를 만들라고 했다”며 “그런데 은행에 가니까 주민센터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시 주민센터를 가니 그때서야 카드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중간에 담당자와 전화를 했을 때는 “당장은 사람이 없으니 돌봄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데리고 오라”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김씨는 돌봄서비스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도 되어있지 않았다. 돌봄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5% 이상 자부담이 필요하지만,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무상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상태였다. 애초에 담당 기관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김씨는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했지만, 만약 받게 된다고 해도 문제가 남아있다. 아이 두 명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한 달 평균 최소 1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 8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김지연씨(가명·51·여)가 <뉴스1>과의 인터뷰 도중 아이들 교육을 위해 붙여놓은 교육용 알파벳 포스터를 쳐다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는 매달 나라에서 받는 200만원 남짓의 돈으로 4가족이 살고 있다. 월세 65만원과 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12만원을 내고 남는 1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쪼개 4가족의 생활비로 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씨는 현재 자신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만 받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본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이지만, 김씨는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아이들 돌봄까지 부탁하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양육에 도움을 받는 장애 부모는 김씨뿐이 아니다. 박지주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대표는

“현행 제도상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양육지원을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많은 장애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없어 현황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김씨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 교육만이라도 제대로 받는 것이다. “애들 교육만이라도 잘해주고 싶어요. 큰애가 똑똑해요. 엄마 마음이 다 똑같죠. 돈 많이 드는 가정교사 데려와서 더 잘 가르쳐보고 싶고, 그런 여건이 안되니까 미안해요. 큰 애한테 특히 미안해요.”

서울=김윤호 기자

## 文대통령이 탄 ‘청각장애인 택시’...글로벌 스타트업 인정

### 고요한 택시, 두바이 엑스포서 선정 한국기업 최초...10만 달러 지원금

청각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택시 서비스 업체가 전세계 6900여개 스타트업이 지원한 국제 엑스포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24일 사회적 기업 코엑터스는 최근 자사가 운영하는 ‘고요한 택시’가 ‘두바이 엑스포 2020’의 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최종 선정돼 10만 달러(약 1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청각장애인 기사와 승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청각장애인도 택시기사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냈다. 지난달 5일에는 ‘대전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택시에 탑승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게 된 ‘엑스포 라이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 7월 5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전시관을 방문해 청각장애인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에 탑승해 서비스 체험을 하고 있다.

브(Expo Live)’ 프로그램은 ‘기회·이동성·지속가능성’이라는 3개 주제와 부합하는 사회혁신 기술을 통해 삶을 개선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았다.

현재 4회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174개국 69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지원했다. 한국 스타트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정으로 고요한 택시는 내년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기회를 갖게 됐다.

송민표 코엑터스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 최초로 전세계 스타트업과의 경쟁에서 좋은 결과를 통해 한국을 빛낼 수 있어 영광”이라며 “7개월 간의 심사 기간 동안 고요한 택시가 창출할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지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달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뉴스1

## SKT, 장애인 표준사업장

### 설립으로 일자리 창출 나선다

SK텔레콤이 2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22일 체결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달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사업장이다.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구성원을 대상으로 SK텔레콤의 5세대(5G)·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와 장애인이 연계해 일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 중이다.

지난 3월 ‘청각장애인 택시 기사’를 위한 티택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던 것처럼, 장애인들이 ICT 기술을 활용해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